

푸짐한 ‘아트 밥상’ 차린 ACC로 여름 피서 떠나볼까

7개 전시관 전면 가동... 도슨트 해설·보는 재미 ‘쫄쫄’
‘쇼 장치들’·‘기억 전달자’ 등 시민 문화향유 공간 주목
김상욱 전당장 “문화와 낭만 있는 삶을 만끽하길” 밝혀

무더위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을 찾고 있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복합전시 1~6관을 비롯해 지난 3월 개관한 지역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인 7관까지 7개 전시관 전체가 가동 중인 데다, 전시관마다 다른 세계관이 펼쳐져 보는 재미가 쫄쫄해서다.

2일 ACC에 따르면 7개 전시관이 모두 운영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ACC를 방문하면 수준 높은 예술 작품 감상과 함께 필요시 도슨트 해설까지 들을 수 있다.

먼저 복합전시 1관에서는 5일까지 ACC재단의 전시 ‘침묵, 그 고요한 외침_폴란드 포스터’가 열린다. ‘폴란드 포스터’전은 누적 관람객 1만5000명을 기록하는 등 전 세대에 걸친 관람객 발길이 이어져 전시 기간을 5일까지도 연장했다. 1950~1960년대 ‘폴란드 포스터 학파’를 집중 조명한 이번 전시는 이항캠퍼스가 소장한 대표작 180여 편과 밀그림 80여 편을 선보인다. 스탈린주의의 엄격한 검열과 억압 속에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은유적이고 회화적

인 이미지로 표현한 이들의 작품은 대중매체였던 포스터를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복합전시 2관에서는 영화를 주제로 한 전시 ‘ACC 필름엔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이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ACC 개관 이래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영화 전시로, 아시아 실험영화 감독 및 영상작가 30명이 참여한 64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최초 여성 실험영화 집단을 이끌었던 한옥희 감독의 미공개 작품을 비롯해 봉준호 감독이 대학 시절 제작한 영화 ‘백색인’, 광주극장 상영관을 재현한 전시 공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상 작품 등 다채롭게 구성돼 영화 팬들의 발길을 붙든다.

바로 옆 전시관인 복합전시 3·4관에서는 오는 8월 23일까지 ‘2026 ACC 주제기획전-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기후 위기, 전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적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현재 복합전시 1~6관을 비롯해 지난 3월 개관한 지역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인 7관까지 7개 전시관 전체가 가동 중이다. 사진은 오는 9월 27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열리는 영화를 주제로 한 전시 ‘ACC 필름엔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전경.

선으로 인간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몽골, 인도, 태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국 31인(팀)의 작가가 참여해 총 10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전시 연계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4일에는 영화와 라이브 난독 공연을 엮은 ‘난독 상영회: 말짓기의 시학’이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상영되고, 오는 8월 5일에는 아시아 6개국 10명의 학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예술적 주제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복합전시 5관에서는 오는 19일까지 미디어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억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 ‘기억 전달자: 미디어라는 이름의 기계들’이 펼쳐진다. 전시는 ‘함께 감각하며 한발 내딛기’와 ‘주시하여 반감게 맞이하기’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총 8팀의 작가가 10종의 매체 예술 작품들을 통해 이 시대 중요한 기억 전달자로 자리매김한 미디어가 우리의 기억과 문화적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지하 3층으로 한 층 내려오면 8월 23일까지 복합전시 6관에서 열리는 전시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Jameel Prize: Moving Images)’를 접할 수 있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아랍에미리트 아트자밀(Art Jameel)과 함께 마련한 국제협력 순회전시로, 이슬람 미술·문화·역사·사회·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동시대 미술과 디자인을 소개한다. 전시는 최종 수상자인 칸다카르 오히다

의 작품을 포함해 ‘자밀 프라이즈’에 선정된 7팀의 영상·설치·사운드·VR로 구성돼 있다.

지역 작가 전시를 위해 올해 새롭게 조성한 공간인 전시 7관에서는 오는 19일까지 2026 ACC 뉴스트(NEWST) 세 번째 전시 ‘Useless but Beautiful’를 선보인다. 그러나 아름답다’가 이뤄진다. ACC 뉴스트는 전남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해 ACC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ACC 뉴스트’ 릴레이 전시의 세 번째 순서로, 골관지를 매개로 도시의 풍경과 일상의 흔적을 담아낸 양나희 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걸렸다. 오는 30일에는 마지막 순서로 서영기 작가의 전시 ‘남겨진 밤’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지난 3월 새로 개관한 전시 7관까지 ACC의 7개 전시관이 모두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ACC에서 문화와 낭만이 있는 삶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5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열린 ‘침묵, 그 고요한 외침_폴란드 포스터’전 전경

지리산 천년고찰서 사유 있는 ‘야간 인문학 난장’

화엄사에서 18일·내달 22일 총 2회
덕재 스님·정지아 작가와 만남 등

야간 인문 프로그램이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마련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여름밤을 맞아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요한 밤 정취 속에서 차와 문학, 음악과 사유가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소규모 야간 인문 프로그램인 ‘화야몽(華夜夢)’을 오는 18일과 8월 22일 두 차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 바람이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 줄풍류 식전공연과 구충암 덕재 스님의 차 이야기, 구례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꾸며진다.

첫날인 18일에는 덕재 스님이 진행하는 ‘차의 세계’가 펼쳐진다. 오늘날 차 문화의 의미를 되짚고, 현대인들이 차를 멀리하게 된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차의 역사와 정신, 차와 수행, 차를 마시는 마음, 산사에서 차 명상 등을 주제로 갖는다. 참가자들은 화엄사의 여름밤 속에서



덕재 스님



정지아 소설가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참가 인원은 25명이다.

이어 둘째날인 8월 22일에는 소설가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으로 꾸며진다. 참가 인원은 30명이다. 정지아 작가는 1965년 전남 구례 출생으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을 졸업,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과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을 출간했다. 김유정 문학상과 심훈문학대상, 한무숙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영수문학상, 김정한문학상, 만해문학상, 노근리평화문학상, 5·18문학상 등을 수상

한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 작가는 이번 ‘화야몽’에서 고향 구례, 가족과 역사,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며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구례 대표 빵집 목월빵집에서 호밀과 통밀을 활용해 만든 건강빵이 간식으로 제공된다.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와 산사 인문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짐으로써, 이번 ‘화야몽’은 단순한 야간 행사를 넘어 구례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따뜻한 문화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주지 우석스님은 “화엄사의 여름밤은 낮 동안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지리산의 바람과 별빛 속에서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시간이다. ‘화야몽’을 찾는 분들이 천년고찰 화엄사의 품 안에서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평온한 밤을 맞이하길 바란다”면서 “화엄사는 오래전부터 수행과 기도,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었다. 이번 화야몽 또한 많은 분들에게 조용한 섬과 따뜻한 현대의 시간이 되고,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화엄사 야간 인문 프로그램 ‘화야몽’에서 식전공연으로 선보일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 줄풍류 모습.



무더위 식히는 합창·오케스트라 ‘하모니’

그라시아스합창단, 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더위가 깊어가는 여름 밤,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로 한 편의 음악시를 그려내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오는 7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여름 특별 콘서트 ‘서머 포엠’(Summer Poem)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가곡과 세계 민요, 클래식 명곡을 아우른다. 친숙한 노래부터 화려한 협주곡, 대규모 합창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음악적 여유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김연준의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한국 민요 ‘밀양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한국적 정서가 담긴 선율에 그라시아스합창단 특유의 맑고 단단한 화음이 더해지는 무대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정기스 오스마노프가 화려한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이 요구되는 비에니아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즈 제1번 라장조 Op.4’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석승환은 앨런 멘켄의 ‘미녀와 야수’를 연주하고, 특별 무대로 그라시아스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K.

317 중 ‘크레도’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지휘는 보리스 아발란 샤프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교수가 맡는다. 그는 독일 마르크트요버도르프 국제 합창대회에서 최우수 지휘자상을 수상한 지휘자로, 이번 무대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균형있는 사운드를 이끈다.

이와 함께 ‘야사 하이페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최고 연주자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기스 오스마노프와 그라시아스합창단 솔리스트 바리톤 신지혁, 소프라노 이수연도 무대에 함께 오른다.

이현수 그라시아스합창단 홍보팀장은 “이번 콘서트는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하모니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한 편의 시와 같은 감동과 여유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창단 24년간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공연하며 한국 합창음악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